

SERMON 4 SEPTEMBER 2016

Philemon: 1-21 Luke 14: 25-33

오늘 우리는 약 2000년전경 과거로 돌아가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면 아마도 여러분은 유대교회당에 앉아 있거나 남자일 경우 율법학교에서 랍비의 설교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당한 과장과 강조를 사용하여 설교하기 때문에 꽤 재미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화속에서 성장하고 삶을 터득해 나갈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듣는 것에도 익숙할 것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오늘 2016년 9월 첫째 주 일요일, 우린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가 갈수록 과장된 표현과 현란한 광고에 익숙해져 가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막장으로 치닫는 정치가들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현재의 우리는 예수님이 생존하던 시대와는 어느 정도 다르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서는 랍비로 여겨진 분으로 교사이자 가르침을 받기 위해 추종하며 따르던 제자들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예수님은 오늘날의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부분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고 기존의 질서를 뒤바꿔 놓으실 분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 송가(the Magnificat)를 떠올려 보세요. 바로 지난주 예수님은 가난한자, 불구자, 절름발이, 장님들을 연회에 초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 연민, 치유와 새롭게 태어난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나라에 가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전 배웠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일이 어떤 비극적 결말을 가져올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주 끔찍한 반면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형벌로 죄인은 형집행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의도한 중요성에는 어떤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말씀일까요? 현재의 우리는 박해를 받을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가족을 놓고 선택을 강요 받을 일도 거의 없음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신념에 맞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읽고 배울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9 월은 Uniting Church 에서 '화합의 달 (Interfaith September)' 로 지정해, 비록 믿음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도록 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의미도 십자가에 못박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존중해 주면서도,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 진실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족도 아닌 이교도마저도 존중하고 보살피라고 설파하시면서 말이죠.

미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짓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요. 단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는 믿음에 대한 헌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닌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의심의 여지없이 다양한 의도들을 가지고 따라다녔을 텐데 그중 대다수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disciple)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learner)라는 말입니다. 제가 책에서 배운 라틴어 첫 마디는 'Discipuli pictogram spectate'(생도여 예시문을 보라) 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많은 것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부득이 가족들을 떠나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내와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도 미워하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젊은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내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중요도는 건물을 짓거나 군대를 일으키기 전 세워야 하는 계획의 중요성과 비견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맺는 견진성사와 같은 헌신은 과거 그들이 바쳤던 헌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적 삶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나이지리아에서 학생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곳 신앙 사회에서는 수많은 교인들이 밖으로 나와 교회를 가득 메우는 것으로 항변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 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들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란 글을 쓴 본회퍼(Bonhoeffer)는 신앙으로 나치 통치하의 독일에서 히틀러에 반대하고 히틀러를 지도자로 부르길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Bonhoeffer 가 히틀러 암살 모의로 감옥살이를 하다 신앙으로 인해 처형을 당한 사실은 많이들 아실 것이십니다. 그가 말했듯이 신앙은 때로는 큰 댓가가 따릅니다

과거와 같은 박해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 에게도 예수님의 말씀들은 여전히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헌신은 수영을 배우는 어린이가 부모에게 갖는 헌신적인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점차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얕은 물 쪽에서 아이들 곁에 있다가 차츰 깊은 물 쪽으로 데려 갑니다. 아이들이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물의 깊이와 상관없이 수영은 전과 똑같이 하면 된다고 안심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얕은 물에서 안전하게 수영하고 싶겠지만, 때로 인생은 우리 발 밑에 깊은 고랑을 파기도 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시련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한가요? 시험에 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망가는 대신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도록 결정하는 순간이 헌신의 순간입니다. 변화로 이끄는 것은 헌신 자체입니다.

미국의 시민권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참여하는 두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희생이 따르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천천히 변화를 야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다른 많은 헌신의 예를 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연습에 매진하는 음악가나 육상선수들도 그러한 예입니다. 커밍 아웃을 결심해서 차별과 증오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게이나 레즈비안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서조차도 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헌신이 있는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대한

헌신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진실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연민과 정의로 가득 찬 삶, 다양한 가치와 반문화적 요구에 도전하는 삶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필리몬에게 쓴 편지를 통해 친절히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도망친 노예를 자유인이자 용서받은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가 실천해야 할 헌신의 일부라고 제안했습니다.

십자가는 아마도 이런 헌신의 표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우리가 즐겁게 헌신할 신앙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 받고, 어떤 권위나 차별적인 관습이 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도 환영 받고 지원받는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시대에 맞지 않게 소속을 가질 자유가 주어지고 한 개인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여성들에 대해 들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면한 도전은 포용심과 올바른 가치관, 환영, 후원과 기도, 공간의 제공, 친절함을 베품으로써 예수님의 선지자적 삶을 충실히 대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을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진심으로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신앙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를 특징짓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관용적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남을 심판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주님의 아이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겠다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끝없는 배움을 통해서 다시 알아가고 또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는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쁜 마음으로 삶으로써 깨닫고, 이를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또한 깃들어 있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